

광양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교류 강화

1991년 협정 맺은 자매도시 공동 번영 실질적 교류협정 “산업과 예술 분야 협력 강화”

광양시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Linz)시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 라흐호텔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경제·문화·예술·교육·관광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린츠시와 1991년 국제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이어온 성과로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린츠시 대표단은 클라우스 루게르 린츠시장을 단장으로 린츠시 재무소득국장과 부르크너하우스 총감독, 린츠시 경제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2박3일간 광양에 머물렀다.



광양시는 최근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Linz)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경제·문화·예술·교육·관광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 기간 린츠시장 일행은 정현복 광양시장을 예방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린츠시 방문단은 광양시 금호동 인공폭포 앞 도로를 명에 ‘린츠 도로’로 지정하는 명에도로명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라흐호텔에서 양 도시 관

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실질적 교류 협정 체결로 양시는 경제와 문화·예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로 다짐했다.

협정 체결식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와 린츠시는 세계적 수준의 제철소를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문화·예술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 교류를 통한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과 예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루게르 린츠시장은 “광양시의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문이었다”며 “앞으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화답했다.

한편 린츠시는 오스트리아 북부 다뉴브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9만명의 도시로 연간 조강능력 444만톤의 포에스트알피네 제철소가 소재해 있으며 2009년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되는 등 산업과 문화가 고르게 발전한 도시다.

광양시는 향후 ‘창의예술고’ (가칭)와 전남도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양 도시간 문화 예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中광저우항무국과 결연

친환경 항만 개발 등 협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최근 중국 광저우항무국(Guangzhou Port Authority)과 자매결연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광저우 BICC(바이어중국제켄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항만협회(IAPH) 제31차 세계총회에 참석중인 차민식 사장은 첸 홍시엔(Chen Hongxian) 광저우항무국장과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데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강화를 위한 방문 프로그램 장려 ▲정기적 정보 교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교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친환경 항만 개발에 노력하고 항만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감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저우항은 지난해 기준 컨테이너 2187만TEU를 처리한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이다.

한편 차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은



IAPH 세계총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광양항이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이자 한국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또 앞으로 크루즈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세계 주요 항만 관계자 및 총회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은어야 무럭무럭 자라서 돌아와라

광양시 백운산 계곡 등에 치어 12만 2000마리 방류

광양시는 지난 10일 수량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한 백운산 계곡 및 광양읍 서천, 봉강면 서천, 옥룡면 동천에 하천정화 활동과 함께 어린 은어 12만 2000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친환경 생태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광양시 체육회, 전남동부 수협, 봉강면 청년회, 상봉마을 영농조합,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 은어는 방류 주변 하천 등에서 성장하여 가을(9-11월)에 산란하며, 부화된 어린은어는 인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지내고 봄철인 3-5월경에 다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가을(9-11월)에 산란한 후 대부분 생을 마치게 된다.

시는 2004년부터 지역토산어종인 은어·참깨·메기·동자개 등 약 327만 마리를 꾸준히 방류해 왔다.

이로 인해 섬진강과 동·서천 등에는 국내·외 낚시 동호인들이 매년 방문하여 은어 낚시를 즐길 정도와 가족들이 물놀이하며 물속 바위 주변 등에서 맨손이나 반등을 사용하여 은어잡이를 할 정도로 수



산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5-10월까지 동자개, 잉어, 붕어, 뱀장어, 자라 등 다양한 품종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생태복원과 수산자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시, 전남 최초 모든 치매환자에 약제비

환자 1명당 월 3만원까지 지원

광양시가 6월부터 전남 지역 최초로 모든 광양시 거주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매 약제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정부의 치매 약제비 지급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을 구분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만 약제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광양 시민 중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모든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하여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발빠른 행보로 치매에 대한 광양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치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 안심센터(광양읍)를 방문해 관련서류(치매약 처방전, 약제명수증, CDR(임상치매평가), 환자신청자신분증, 약제비 받을 통장)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소 홀로 노인 가정 반찬 배달 봉사

어르신 40여명에 방문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 희망의 뿌리 봉사단이 지난 10일 지역 내 홀로 지내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반찬 배달 봉사를 펼쳤다.

이 날 반찬 배달 봉사를 위해 지역 도시락 업체 3곳(어머니, 부성, 세븐도시락)의 후원을 받아 광영동과 중마동에 거주하는 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반찬을 전달했다.

봉사를 마친 품질기술부 김은호 과장은 “번덕이 심해진 날씨 탓에 어르신들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어르신들이 전달받은 반찬으로 맛있게 밥 한끼를 드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의 뿌리 봉사단은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광양제철소 사내 봉사단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반찬을 전달해 오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시 중마동에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관광발전 전기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공익기반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받고, 사비 5억원을 투자해 올해 안으로 관광협업센터 설계를 공모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마동 버스터미널 부근 광양시 관광안내소 부지에 건립하는 ‘관광협업센터’에는 관광안내소 기능에 지역특산품 판매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회의공간과 개방형 사무공간, 미니카페 등이 들어선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양시가 올해 관광추진에 신규지역으로 선정되고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민선 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의지를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대상 예정지인 광양시 관광안내소는 햇빛광양시터부터 출발지로서 중마터미널, 중마시장, 이순신먹거리터 등 등과 연계해 있고, 이순신대교, 순천시의 여수시 등 지역관광 거점지와 연계 편의성 등의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는 중마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왔지만 관광정보 획득 채널이 다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플랫폼 구축과 지역관광 협업 체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광관광협의회, 관광두레협의회, 지역관광사업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양관광DMO 조직의 설립을 통해 주민 주도 지역관광사업체 발굴과 창업, 지역관광 신규사업 발굴, 관광사업체 활성화 등으로 민·관 관광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 관광을 지역민과 함께 진단하고 발전 방향 고민과 실행을 함께 해나가는, 광양의 실질적 관광협업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방형 공간에 관광을 이끌어갈 청년, 관광사업자 등 광양시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협업센터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하고 이로운 관광이 되도록 마중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7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지중화 공사구간 예정공고안내

나주시 중·남부권 지중화 예정지역 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중화공사 목적: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중화 예정지역:
 - 중부권(나주 중부 노인복지관~동점문)
 - 남부권(이창동주민센터~이창삼거리)
-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2019. 06 ~ 2020.02 (8개월간)
- 신·증설고객 지중공급시행 기준일: 신문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 기타 문의사항: 나주시사 전력공급부(☎061-330-2287)

지중화 확정지역 위치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시사